

기상청, 중앙아시아 기상재해 조기경보 역량 강화 선도

- 타지키스탄 기상청 관계자 초청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타지키스탄 기상청 정책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4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기상재해 대응 역량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상청이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하는 ‘타지키스탄 기상재해 감시시스템 현대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기상관측망이 부족한 타지키스탄의 기상재해 감시 및 조기경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관측 기반 시설(인프라)을 보강하는 사업

교육과정은 한국 기상청의 정책과 재해 대응체계 소개와 더불어, 실습 중심의 기상관측장비 운영 기술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 기상청의 기상관측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제연합(UN)과 세계기상기구(WMO)가 주도하는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arly Warnings for All, EW4A11)’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타지키스탄의 기상재해 대응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두 기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여 앞으로의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라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협력국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입교식 사진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마승완 (042-481-7320)
		담당자	사무관	김지원 (042-481-7319)





| 입교식 사진 |